

“기술교육을 통하여 점검능력을 향상시키자”

'89년도 기술직원 교육계획이 확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제시된 여러가지 방안중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의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최대공약수를 찾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교육문제가 커다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데 교육이란 원래 가르치어 기른다는 뜻으로 동양에서는 맹자의 「得天下之英才而教育之」라는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천하의 영특한 인재를 구해서 이를 가르치고 길러 장차 쓸모있는 일꾼을 만들자는 데에서 시작된 말이라 한다.

직장교육은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힘으로서 업무능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업무수행상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건물의 방재설비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건물관계자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 기술직원의 입장에서야 교육의 필요성은 거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본부 기술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설문조사 결과만 보아도 97.3%라는 절대다수가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61.4%가 찬성하고 있었다. 다만, 희망하는 교육의 내용과 평가방법에 대해서만 상호간에 의견을 일부 달리하고 있었다.

이번 교육계획은 기술직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점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종전에 2~3명이 점검하던 물건을 현재는 1~2명만이 점검에 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직능에 대한 완벽한 점검능력 없이 점검현장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점검은 부실화되고 점검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우리의 설 땅은 점점 없어지고 말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바쁜 중에도 자기교육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미련한 사람은 한가한 중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을 회피한다. '89년도 교육계획에 의하면 「점검기술교육」은 점검업무에 필요한 직능별 필수과제를 스스로 자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지가 없으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기개발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축적된 기술을 점검현장에서 활용할 때 안전점검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상승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 기술직원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